

2017년 11월 23일, 애월읍 수산리 수산리노인회관, 강경민 조사.
 송옥희(여, 1938년생, 애월읍 수산리)

- 줄거리: 수산리에 살던 딸이 봉성리로 시집을 갔다. 꿈에 팽나무 귀신이 나와서 누가 나무를 자르려고 하니 가서 못 자르게 말려 달라 하였다. 딸은 꿈에서 깨자마자 친정으로 달려가 나무를 자르지 못하도록 말했다.

[제보자] 시집 갔인다. 귀신이 폭낭을 끊었던 굴으니까. 딸신디 빨리 강 그 폭낭 끊지 못하게 허렌. 경 허난 버선창에 돌으멍 우리 집 쪽긔다 오라났덴 굴읍디다. 폭낭 끊지 못하게 허젠.

[조사자] 누가 집 근처에 오라난마씨?

[제보자] 그 딸고라 귀신이 나오랑 굴은 거라. 귀신이 나오라네.
 “빨리 강. 그 폭낭 끊지 못하게 허라.”

[조사자] 여기 살던 딸인디?

[제보자] 응. 도노미 시집 갔는데. 옛날에.

[조사자] 도노미가 어디파?

[제보자] 봉성. 옛날 말로 도노미.

[조사자] 아. 딸한티 귀신이 나타났으네.

[제보자] 딸한티 귀신이 나오라네.

“그 폭낭 끊었이메 끊지 못하게 너 강 굴으라.”

경 허난. 버선창에 그 옛날 자갈 와갈와갈 허는디 돌려와났젠.

[조사자] 그 얘긴 예전에 들어 난 얘기지예?

[제보자] 응. 그건 쪽긔디서 들어났어. 이 폭낭은 건들이지 못헌덴. 지금 그 폭낭이 나 둘레로 세 둘레는 더 가사 헐 거라. 경 허난 그 폭낭이 애월에 신고 허니까 그 폭낭을 잘랐어. 그 굴튼 거.

[조사자] 굴튼 거?

[제보자] 응. 거 썩어들언 게 굴튼 거 아니. 폭낭이 경 허난. 엉삭허나네 애월서 그걸 잘랐어. 이제 폭낭을. 그 켜멘사 박앗인디사. 이젠 잘랐는데 그 폭낭을 끊젠 허나네. 잼이난 딸고라 귀신이 나오란. 빨리 강 그 폭낭 못 끊게 허렌. 경 허난 톱데영 끊젠 헛이난. 딸이 그 봉성서 돌려오라네 그 폭낭 안 끊엇젠 헛어.

- 핵심어: 귀신, 딸(딸), 폭낭(팽나무), 수산리, 봉성리, 도노미, 꿈, 애월